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요한 1,29-30)

<광야에서의 세례자 요한>, 필리프 드 상파뉴

**[제1독서]** ..... 이사 49,3-6

**[화답송]** ..... 시편 40(39),2ㄱ과 4ㄱ,7-8ㄱ,8ㄷ-9.10  
(◎ 8ㄱ과 9ㄱ)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 1코린 1,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 ..... 요한 1,29-34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334] 사랑의 성체성사  
[151] 주여 임하소서
- 파견성가: [65] 예루살렘 복되고

##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그때에 <sup>29</sup>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sup>30</sup>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sup>31</sup>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sup>32</sup>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sup>33</sup>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sup>34</sup>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John the Baptist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He is the one of whom I said,

‘A man is coming after me who ranks ahead of me

because he existed before me.’

I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why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made known to Israel.”

John testified further, saying,

“I saw the Spirit come down like a dove from heaven

and remain upon him.

I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On whomever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he is the on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Now I have seen and testified that he is the Son of God.”

## † 묵상

증언을 한다는 것은, 증언할 대상에 대한 탐구나 분석이 아닙니다. 증언은 제 삶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복음의 “어린양”은 그런 외침을 드러내는 대표적 표상입니다. 유다 사회가 간직한 “어린양”의 의미는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대속이였습니다(탈출 12장; 이사 53장 참조).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유다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가 버거울 만큼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절망은 하느님을 통하여 희망을 꿈꾸는 것으로 바뀌고, “어린양”은 미래에 펼쳐질 희망찬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 오시는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규정합니다. 당시 사회는 세상을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직접 주관하신다는 희망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은 세상을 단절시키고 갈라놓고 찢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으로 오셨고(요한 13,1 이하), 당신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친교의 자리입니다.

증언을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세상에 오신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유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은 “어린양”의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화합과 신뢰, 사랑임을 일깨웁니다. 화합과 신뢰, 사랑은 요한 복음이 쓰인 그 시대를 살아간 신앙 공동체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성화 해설

##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필리프 드 샹파뉴(Philippe de Champaigne, 1602-1674)는 바로크시대의 프랑스 화가이다. 그는 1628년에 루이 13세의 궁정화가가가 되었고, 주로 종교화와 초상화를 그렸으며, 플랑드르의 사실성과 프랑스의 기품을 겸비한 화가였다. 그가 그린 <광야에서의 세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34절이 그 배경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요한 1,29-30.34)



<광야에서의 세례자 요한>, 필리프 드 샹파뉴

전면에 반신상으로 표현된 사람은 누구인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낙타 털 옷을 입고 갈대로 엮은 십자가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는 리본이 달려 있는데,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라고 쓰였다. 그래서 “Ecce” (보라), “Agnus Dei” (하나님의 어린양), “Peccatum Mundi” (세상의 죄) 등의 라틴어 단어들도 보인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은 관객들을 응시하면서 멀리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요한의 손가락 끝에 머물러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고 있다. 그리고 그분 주위에 머문 광채가 먹구름을 몰아내고 있다. 그분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작은 시냇물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할을 시작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요한의 눈빛과 표정에서 두려움을 감지할까?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 세례자 요한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표정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 하나님의 어린양

■ 요한 세례자가 그리스도께 부여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칭호는 신약성서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 하나님의 어린양은 양과 파스카 양에 비교된 주님의 종인 내포한 두 가지 개념을 상기시킨다. 희생된 파스카 양인 예수님은 영구히 희생 제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남는다.

■ 상징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성체의 표지나 제물이신 예수님의 표지를 가리킨다. 대체로 어린양은 십자가 또는 기(旗)와 후광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 미사 중에 빵을 쪼갤 때 주례자나 성가대가 신도들과 후렴식으로 노래하는 호칭 기도 형식의 기원에서 사용된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원은 축성된 빵을 모든 신도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충분히 쪼갤 때까지 반복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원에서 종결 문장은 “평화를 주소서”로 바뀐다. 빵을 나누는 동안 성가를 부름으로써 일치의 표지를 강화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인 빵을 나누기 때문” (1코린 10,17)이다.

하나님의 어린양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약의 어린양이심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속량되었습니다”(1베드 1,18-19). 성체성사는 마음과 영혼에 죄의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새 파스카의 기념이다.

<전례사전>

##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19, 2020

### John the Baptist : Was He the Messiah?



<오마리아 주일복음/바오로말 콘텐츠>

Everybody thought that John the Baptist was a great preacher and prophet.

Some people thought that he might even be the Messiah who would save their people.

But John knew that was not his job. When Jesus came to him at the river to be baptized, John pointed at Him and told the people, "Behold, the Lamb of God!" He told the people that he was not the great one; Jesus was.

Saint John the Baptist is an example to all of us. If we are really good then our lives will show other people the way to Jesus.

John the Baptist taught the people by telling them to repent of their sins and be baptized.

God wants some people to teach about Him by teaching and preaching to the people. But for most of us, the best way to teach others about God is by living a good life and loving God. If you really do your best to love God then your life will be like St. John the Baptist's and point the way to Jesus.

What is something that you can do today to lead someone to Jesus?

<<https://www.thekidsbulletin.com>>

### 2020 Life is VERY good

#### Evening of Prayer

Thursday, January 23, 2020

7:30pm-9:45pm, doors open at 6:30pm

Eagle Bank Arena

(4500 Patriot Circle, Fairfax, VA 22030)

Drop off : 6:45pm, Pick up : 10:15pm,  
at the Eagle Bank Arena Parking Lot

#### Registration (Evening of Prayer)

- Open to 6<sup>th</sup>-12<sup>th</sup> graders
- Limited Spaces, First Come First Served
- \$8 per participant (Our parish support \$10 per participant)
- To register, Contact your Sunday School Teachers or School Office

### Jesus' Baptism Crossword Puzzle

(Jan 12, 2020)

Answer



SAINT OF THE DAY

# Saint Fabian

Feast | January 20

Pope and Martyr / Patron Saint of Rome



According to Eusebius of Caesarea, who wrote a detailed history of the Church about fifty years after Pope Fabian’s time, Fabian was a layman who went to Rome after the prior Pope’s death. He was elected Bishop of Rome due to a **miraculous sign**. (Suddenly a dove landed on his head. The people saw this as a sign from God and chose Fabian as the new Pope.)

In other words, Fabian did not strive to his high office. He did not seek to be important. He accepted his role in the full knowledge that it could lead to big trouble for him. And that trouble eventually found him.

While he was Pope the persecution of the Christians stopped. Pope Fabian chose seven Deacons to look after Rome. He also spoke out against heresy. The Pope did a lot of work repairing the Catacombs.

When the good emperor died, the new one<sup>\*1</sup> (The Roman Emperor Decius) started persecuting the Christians again. Pope Fabian would not deny Christ so he was killed.

Pope Fabian’s martyrdom shows why the Church survived its early and vicious persecutions—it had leaders who knew how to die. Great deaths don’t follow shallow lives. The early popes didn’t give up or give in. They didn’t renounce the faith. They were fearless. They felt the cold metal of a sharp knife against their neck and still persevered. A religious society with such models of courage in its highest ranks had to survive. And it did survive. We are living proof of that.

< <https://www.thekidsbulletin.com> >, < <https://mycatholic.life/> >

We can learn from the story of Saint Fabian that God can do great work with ordinary people. Saint Fabian did not expect to become Pope, But when he did he worked hard for the church. If you ever get chosen to do a big job, remember that God will help you do it.



## WorkCamp 2020



Arlington Diocese WorkCamp is a week long experience providing the teens of our Diocese an intense conversion experience through **service, community, and prayer.**

Through the WorkCamp program, we seek to serve our fellow Virginians by making their homes warmer, safer, and drier.

**WHEN**

**June 20(Sat) - 26(Fri), 2020**

**WHO**

Open to **9<sup>th</sup>-12<sup>th</sup>** graders

We are looking for volunteers to serve as

- **adult crew leaders** (two men and two women)
- **contractors**(4 people) and more.

**CONTACT**

Mr. **Yongwoo Kwon Stephano** at (571) 244-0333 or [yong@yongskwon.com](mailto:yong@yongskwon.com)

**\*1**

A third-century letter of St. Cyprian to the deacons and priests of Rome further confirms the virtuous life and courageous death of Pope Fabian. He reigned as Pope for fourteen years before being martyred in 250 A.D. The Roman Emperor Decius was his killer. Decius’ persecution was vicious but not universal. He tried to kill the body of the Church by cutting off the head, and so sought the Pope’s blood. It didn’t work. About 65 years later, one of Decius’ successors as emperor, *Constantine*, would legalize Christianity, bringing to an end almost 300 years of on-again, off-again persecution.

##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아멘.



일치 주간(1월 18일 - 25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는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을 통하여,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뜻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1월 18일부터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인 25일까지를 '일치 주간'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간구하는 공동 기도를 바치고 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0년 기도 지향

#### 1월 복음화 지향: 세계 평화 증진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인들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이  
 세계 평화와 정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January, Prayer intention for evangelisation: Promotion of World Peace

We pray that Christians,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and all people of goodwill may promote peace and justice in the world.

##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생명 수호 행진이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까지 실시됩니다.

• **일정**: 1월 24일(금) 오후 12시  
 11시 미사 봉헌 후 성당에서 출발(점심 제공)  
 따뜻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선착순 55명, 1월 19일까지(친교실, 사무실)

###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표어 공모

본당 승격 25주년을 맞이하여 “영적인 성숙 및 화합과 일치”를 지향하는 의미의 기념 표어를 공모합니다.

• 표어의 글자수는 18자 이내

• 마감: 3월 31일(화)

### ● 날씨에 관한 본당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질병이나 악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2. 우리 본당은 악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www.fcps.edu 참조)

3.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악천후로 인하여 미사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악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1** 조상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1월 24일(금) 오후 8시
-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오니 미사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2** 하상회 모임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40 (B-3,4)

**3** 안나회 모임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40 (A-1,2,3,4)

**4** 꾸리아 모임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

**5** 베드로회 월례모임 (설 맞이 친교)

- 일시 : 1월 19일(일) 오후 1시 (A-1,2)

**6** 어머니 학교 봉사자 교육

- 일시 : 1월 19일(일) 오후 4시-5시 (A-1,2)

**7** 단체 홍보의 날

- 일시 : 1월 26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각 단체를 소개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8** 텃밭 가꾸기 세미나 (교육부)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A-1,2)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강사 :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9** 루카회 월례회의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B-2)

**10**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B-3)

**11** K of C 월례회의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B-4)

**12** 복사단 모임

- 일시 : 1월 26일(일) 오후 1시 (B-1,2)

**13** 빠뜨리치안회 모임

- 일시 : 1월 26일(일) 오후 2시 (A-1)
- 주제 :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는가"

**14** 울뜨레야 모임

- 일시 : 1월 31일(금) 오후 8시 (A-1,2,3)

**15** 2020년 학생 견진성사반 등록

- 대상 : 7학년 이상
- 접수 기간 : 2월 9일(일)까지
- 접수 장소 : 하상관 교무실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6** CYO Ski Trip

- 일시 : 1월 24일(금) - 1월 26일(일)
- 접수 : 하상관 로비, 8시 10시 미사 전, 후
- 장소 : Hidden Valley, Somerset, PA
- 등록비 : \$130(Lift Only) / \$160(Rent, Lift) \$190(Lift, Rental and Tubing)
- 문의 : John Kim (703)201-0033

**17** 바오로팔 통신 성서교육 신청자 예비 모임

- 대상 : 2020년 바오로팔 통신 성서교육 과정 신청자 전원 (인터넷 접수/e-Learning 과정 신청자 포함)
- 내용 : 교육과정 안내 및 스티디 방법
- 강사 : 홍젼마 수녀, 교육부
- 마감 : 2월 2일(일) 오전 11:30 (A-1,2)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8**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 일시 : 2월 9일(일) 10시 미사 중
- 환영식 : 2월 9일(일) 오전 11:30(A-1,2)
- 세계 결혼 기념일을 맞아 결혼 25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는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 신청 및 문의 : 김 아놀드 / 레지나 (703)517-3665

**19** 동전 분류 작업

- 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 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월 19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20** 2020 Work Camp (고등부)

- 일정 : 6월 20(토) - 6월 26일(금)
- 대상 : 9학년 - 12학년 학생 / 성인 Crew Leader (남 : 2명 여 : 2명, Contractor : 4명) 봉사자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 : 권웅우 스테파노 (571)244-0333 yong@yongskwon.com

● 감사합니다 ●

Giving Tree를 통해 \$21,220(1,061명분)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주간 : 집회 7-12, 콜로2

KACM TV 하이라이트

- 1월 23일(목) 오후 5:00-6:00
- 1월 24일(금) 저녁 8:00-9:00
- 1월 26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양정무 교수의 교회미술 2천년 (6회) : 중세 고딕 성당 (2)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1월 22일(수) 오전 6:15-6:45
- 1월 25일(토) 오전 8:00-8:30



- 황창연 신부님의 강의 '죽음 깨닫기'(1부)  
※ 카카오톡에 '라디오 워싱턴 AM1310'을 친구로 추가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1월 12일(주) 세례 축일

주일헌금	\$8,296.00
교무금	\$9,055.00
교무금(크레딧카드)	\$1,690.00
감사헌금	\$300.00
2차헌금	\$0.00
<b>합계</b>	<b>\$19,341.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타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드,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성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지(세레나), 양소차(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사온),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젼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용재(7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아나), 이영민 (다윗), 한양수 (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산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도니), 심용천(요한), 정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마카렐), 최용성(프란치스코), 정수지(요안나),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현(모세), 박홍우(이냐시오), 제임스 리(호천), 안병진(다니엘), 제이슨 영학 (마틴), 이상목 (다윗)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 모임
1월 19일(일)	연중 제2주일	하상회(오전 11:40, B-3,4), 안나회(오전 11:40, A-1,2,3,4), 베드로회(오후 1시, A-1,2), 꾸리아(오전 11:30, 하상관 #4), 어머니 학교 봉사자 교육(오후 4시, A-1,2), 주일학교 휴강
20일(월)	연중 제2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사무실 휴무(Martin Luther King Jr. Day)
21일(화)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22일(수)	연중 제2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23일(목)	연중 제2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24일(금)	성 프란치스코 살례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March for life(오후 12시 출발), 설 합동 위령 미사(오후 8시)
25일(토)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1월 26일(일)	연중 제3주일	단체 홍보의 날(친교실), KofC(오전 11:30, B-4), 요한회(오전 11:30, B-3), 루카회(오전 11:30, B-2),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빠뜨리치안회(오후 2시, A-1)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소아전문 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커머셜 김준 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원 통증 · 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뉴욕라이프</b>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b>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메디케어(Supplement, Advantage C, Part D 포함) 건강/생명 보험 가입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클로이 양 부동산</b>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b>GCoop 케어셀라</b>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